

# 최근의 환율동향과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 용 삼  
〈현대정유 업무과장〉

## 1. 머리말

요즘 들어 어느 산업이나 환율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외적 환경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입원자재비가 원가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정유산업의 경우 더욱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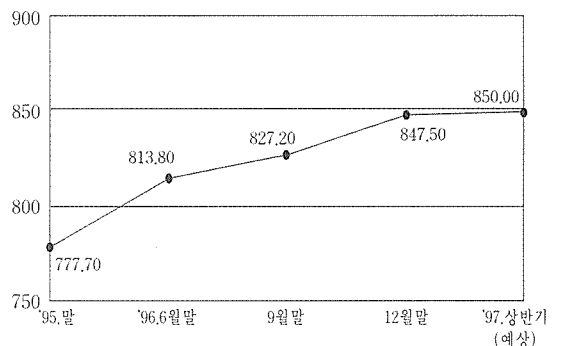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이후 계속 달러화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97 상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96년도 정유사의 손익 악화는 물론 유가 자유화, 수출입 자유화 등 1단계 석유산업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는 '97년도 정유산업의 손익 전망에도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즉, 정유사는 엄청난 원유 도입비용의 대부분을 유

전스 금융이라는 단기외화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장치산업의 특성상 각종 정제설비의 신·증설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른 장기외화차입

〈그림-1〉 달러환율의 상승추이

(단위 : 원/\$)



※ '97상반기 환율 : 국내 주요경제연구소 전망치

금의 발생으로 요즈음의 환율 상승세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달러화 환율상승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스 금융 및 장기외화차입금의 측면에서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 2 유전스 금융과 환율영향

석유정제업의 자금 1회전기간은 현유가 반영기준으로 126일로서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며, 원가 중 차지하는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164일('95실적기준)에 걸친 유전스 금융으로 그 막대한 운영자금부담을 대부분 해소하고 있다.

유전스 금융이란 외국으로부터 외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그 구입대금을 생산된 제품의 판매금액으로써 상환할 수 있을만큼 장기간 신용을 부여하는 외환관리규정상의 결제형태로서 석유정제업에 없어서는 안될 제도인 바, 산유국등이 무이자로 제공하는 공급자 신용(Shipper's USANCE 51일)과 은행이 이자를 붙여 제공하는 은행 유전스(Banker's USANCE 113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정유사의 일일 정제능력은 최근 당사를 포함한 유공 및 LG정유의 증설로 2,520천배럴에 이르러, 이에 따른 유전스 평잔은 최근 원유 도입단가 22.3 \$/B 및 유전스 기간 164일 기준시 9,216백만달러, 원화로는 77,87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유전스 금융은 엄청난 규모의 외화 단기차입금이어서 달러환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원유 선적일을 기준으로 유전스 금융은 원화로 환산 표시되는데, 실제 원유대금 지불은 공급자 신용과 은행 유전스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선적일과 결제일 사이의 환율 변화는 고스란히 환차손익으로 남게 된다.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를 감안하여 유종별 최고판매가격을 책정하고 관리하였던 93년 이전의 유가완충제

도나 지난 3년간(94~96)의 유가연동제하에서도 정유사가 환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실발생 환차손익에 비해 유가 반영 환차손익이 적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유가자유화 유종으로 불리우던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 항공유 등의 판매가격에 환차손을 전가하지 못해 왔다는 점과 대외경쟁상 수출가격에도 환차손의 전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유전스 환차손이 원유 수송기간('95 실적기준 31일)을 제외한 「통관일~결제일」기간만을 대상으로 유가에 반영되어온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원인을 든다면 유전스 사용기간이 매년 증가해온 반면 물가영향 등을 염려하여 거의 2년전 유전스 사용기간이 유가에 반영될 정도로 매년 지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표-1〉은 유가연동제 시행기간중 실발생 유전스 환차손익과 유가반영 USANCE 환차손익을 비교한 것이다.

〈표-1〉 국내 정유사의 유전스 환차손익(실발생 대 유가반영)  
(단위 : 억원)

	실발생	유가반영	차이(미반영)
1994	914(益)	410(益)	504(益)
1995	1,062(益)	430(益)	632(益)
1996 상반기	1,870(損)*	1,430(損)	440(損)

〈주〉 \* '96 상반기 유전스 환차손 실적 : '95 B/L 일수(선적일~결제일) 적용 추정치

'96년도의 경우 상반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스 환차손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는 96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유전스 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의 정유부문손익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2〉 국내 정유사의 정유부문 세전손익(실발생 대 유가반영)  
(단위 : 억원)

	실발생(A)	유가반영(B)	차이(A-B)
1994	△237	1,939	△2,176
1995	△841	2,199	△3,040
1996 상반기	△575	1,280	△1,855

〈주〉 '96 상반기 허용이윤 = 96년간 허용이윤(2,560억원)×1/2

유전스 환차손은 '97. 1월 원가증 차지하는 비율이 3.7%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원가항목이 되고 있는 바, 국내 석유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므로 유전스 환차손 역시 판매가격에 충분한 수준으로 전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전스 환차손익은 B/L일수(선적일~결제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 항공유 등의 판매가격에도 동 환차손익을 반영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적정원가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 등 유류 소비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외화 장기차입금과 환율 영향

국내 정유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국내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석유정제시설을 계속 확충시켜 왔으며, 석유소비의 경질화, 저유황화 추세에 부응키 위하여 중질유분해시설·탈황시설 등의 고도화설비 신·증설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의 조달과정에서 장기외화차입금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해왔다.

〈표-3〉 국내 정유사의 장기외화차입금 증가추이  
(단위 : 억원)

	1993 말	1995 말	1996 상반기말
장기외화차입금	11,875	16,495	19,220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해서도 환차손익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는 유전스 금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입시점에서 결산서상에 원화로 환산된 후 상환기일 또는 결산기일 도래시 동일자의 환율 기준으로 최종 환산되어 그 차액이 외화차손익 또는 외화평가손익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정유사의 외화차입금 환차손익 발생추이는 〈표-4〉와 같다.

〈표-4〉 국내 정유사의 외화차입금 환차손익(실발생 대 유가반영)  
(단위 : 억원)

	실발생	유가반영	차이(미반영)
1994	100(損)	97(損)	3(損)
1995	107(益)	5(益)	102(益)
1996상반기	530(損)	67(益)	597(損)

외화차입금 환차손익을 유가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로서는 먼저, 외화차입금이 유전스 금융과는 달리 달러화에 국한되지 않고, 엔화, 스위스프랑 등 다양한 화폐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정제시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는 고도화시설부문이 이미 유가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며, 셋째, 외화차입금의 경우 그 상환시점이 유전스 금융과는 달리 년중 꾸준히 일어나지 않는데다 향후 환율변화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차입금 환차손익의 경우 유전스 환차손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상당부분이 고도화부문으로서 이미 유가상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96년도의 이상급등현상과 같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가산정대상 원가(정제비용)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표-5〉 국내 정유사의 고도화시설 신·증설추이 및 소요자금(95~99)

고도화 시설(천B/D)			소요자금(억원)
중질유 분해시설	중질유 탈황시설	계	
223	115	338	38,600

사료된다.

####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러환율의 변동은 정유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96년도 중 계속된 환율급등현상은 국내 정유사에 엄청난 규모의 환차손을 초래하였는 바, 앞에서 제시한 '96 상반기 환차손의 2배 규모인 5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유사 원가중에서 환차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97. 1월 유가 자유화를 계기로 유전스 환차손익도 전액 유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스 환차손익의 기산일은 통관일이 아닌 선적일이 되어야 하며 ('97.1월부터 적용중),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 항공유 등 '96년 이전 유가자유화 유종의 판매가격에도 유전스 환차손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판매자·구매자 쌍방의 공동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반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고 과소비풍조를 일소하여 국제수지를 정상화시키고 달러환율의 안정화를 기해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유산업의 경우에도 오는 99년 석유정제업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굳건한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다. ♣

#### |해|외|소|식|

##### 수탁정제 석유제품 국내판매 자유화

일본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금년부터 석유회사가 해외 석유회사등으로부터 수탁(受託)하여 정제한 석유제품의 국내판매를 전면 자유화했다. 이는 휘발유수입 자유화등 '96년 이후 계속되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품의 50% 미만으로 억제한 판매제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 철폐조치로 석유회사는 수탁정제제품중 공급이 부족한 등유나 휘발유를 국내에서 우선 판매하고, 공급과잉인 중유를 해외로 돌리는 다양한 제품의 조달·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비용절감을 통한 제품가격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정제의 위탁선(委託先)은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등이 주요국이고 이들 국가는 현지의 정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일본의 석유회사가 그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수탁정제물량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평균 일본의 원유처리량(약 500만B/D)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물량은 석유제품의 가격·수급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청은 석유원매·정제회사가 수탁정제 할 경우 수탁정제제품의 50%이상을 위탁국(위탁선)의 해외기업에 공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석유회사는 생산품의 50% 미만밖에 국내판매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의 규제철폐조치로 한층 경영의 자

유화가 진전되었다고 에너지청은 자체 평가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만들때, 휘발유·등유·중유등의 생산비율은 거의 일정하여 흑한기 등유의 수요가 급증해도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면 수요가 적은 중유가 필요이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필요한 등유는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대규모 원매회사등 석유회사는 『등유에 한정하지 않고 각 제품의 수급에 맞는 유연한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탁정제를 경영전략의 하나로 채택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97. 1/5)